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

崔亨燮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일본경제신문에서 제정한 닛케이아지아상을 받고 수상기념 강연을 했다. 최회장의 기념강연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崔 亨 燮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먼저,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신 일본경제신문사(日本經濟新聞社)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요즈음 경제협력권(經濟協力圈)의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EC경제권, 북미경제권의 구성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하겠습니다. 구미쪽의 경제권역화(經濟圈域化)에 자극받아 아세아권에서도 권역화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은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아발전回廊」형성 제안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권역 대신 이른바 아시아발전회랑(development corridor) 또는 성장대(growth belt) 형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발전회랑(發展回廊)의 개념은 경제통합이나 지역동맹 또는 협력기구 등의 공식적 조직화는 하지 않으면서 몇 개의 국가와 지역을 연결하는 발전교류체제 또는 연계체제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려면 북미와 EC처럼 국가간의 경제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동남북아에서는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여타 국가들간에 격차가 너무 커서 공동체 형성을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제와 기술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진국이 선두에 서서 주변국가들의 기술수준을 높여주고 이들과 함께 동남북아의 경제수준을 향상시키는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우선 공생이라는 개념아래 적절한 지역간의 기술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없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그 나름대로 응분의 기술을 가지도록 지원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자문을 시작한 것은 81년 3월 태국에 가서 과학기술개발계획안을 마련해준 것을 시점으로 해서 91년 7월까지 10년동안 해외에 나간 것이 무려 65회가 됩니다. 이를 평균해보면 1년에 6회 이상 나간 것이 되는데 거기에서 주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첫째, 과학기술 정책 및 전략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 또한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기조연설 및 초청강연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개발도상국의 정부 혹은 필요한 기관에 가서 기술자문을 했으며, 셋째는 UN 산하기관인 UNDP, UNESCO, UNIDO, ESCAP 등을 비롯하여 IDRC라든

가, APO(아시아생산성본부) 등 기타 국제기관에서의 요청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계획작성을 지도한 것 등인데, 최근에 와서는 국제기관에서의 요청이 아니라 그 나라 정부에서 특히 국가원수가 직접 초청하여 여러 가지를 자문한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원수가 직접 자문에 응해달라고 요청해왔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원수들이 그 나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입니다.

저는 10여년간 동남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과학기술개발 정책과 계획에 관한 강연과 강의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러한 강연이나 강의가 끝나면 제게 물어오는 공통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도 한국처럼 성공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게 됩니다.

즉, "그 첫째는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라는 국가원수의 투철한 이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영도력이 필수적이며, 다음에는 능력의 배양과 배양된 능력의 조직화이고, 끝으로 이를 거국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과감한 추진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순방하는 동안 나라마다 빠짐없이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 혹은 우리와 같은 신흥공업국(NICs)의 협력을 크게 바라고 있는 것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동남아 제국과 어떠한 유대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역을 한다든가, 합작투자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한번 따져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상품보다 기술수출이 중요

우리가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상품수출이나 원료수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래를 내다보고 기술수출과 플랜트수출에 유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하는 교역증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의를 갖게 하면서 거래를 증진하기 위하여서는 이쪽에서도 무엇인가 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나라 발전을 돕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으로, 그 나라가 후진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공업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개발 정책이나 계획을 마련하는데 협력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과거 경험을 살려 이들을 진지하게 도와주고 이와 관련된 기술수출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라 덮어놓고 상품수출 위주로 이 지역에 진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한계성을 뚜렷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일은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각자 특유한 역사적 배경, 문화 및 사회적인 전통과 관습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경제적인 여건도 서로 판이합니다. 때문에 이들을 도와준다

▲ 崔亨燮과총회장(왼쪽)이 니혼게이자이 쓰루다 사장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든가, 이들과 협력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이들의 생리와 조건, 생활양태와 사고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 편에 서서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에 파고들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세부터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적당히 관찰한 피상적인 판단에서 일을 했다가는 크게 시행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경로를 걸어왔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과거 선진국들의 원조 및 협력실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실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견해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의 특성과 사정을 잘 파악하여 '신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노력해야 된다고 보며 상품이나 사업에 관한 협력에 선행하여 먼저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생각할 때, 언제나 스웨덴의 과학자 스티븐·데디에(Stevan Dedijer)박사가 발표한 「후진국에 있어서의 과학의 후진성」(Underdeveloped Science in Underdeveloped Countries)이라는 논문 중에서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원수가 선두에 서서,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 구절을 상기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한 나라 과학기술 개발에는 국가원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기술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開途國, 국가원수가 솔선을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만나본 개발도상국의 국가원수 중에서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뚜렷한 마음가짐과 실천력을 가진 분을 소개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과학기술자들의 올바른 자세와 행동이 그 나라 과학기술 개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원수들이 과학기술 개발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대표적으로 전 스리랑카대통령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1985년에 스리랑카를 두번 방문했습니다. 85년 3월, UNIDO가 주최하는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워크숍이 스리랑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 초청을 받고 콜롬보로 갔는데, 그 곳에 도착해보니 회의 전날에 스리랑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개발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왕 여기에 온 것이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를 승낙했고, 3월 11일 저녁에 스리랑카의 여러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튿날인 12일 아침에 워크숍 개회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와 개회사를 했습니다. 개회식을 마치고 간단한 다과회가 있었는데, 대통령 과학고문이 제게로 다가와서 대통령이 보잔다고 하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인사를 했더니 "어제 최박사가 한 강연내용이 좋았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과학기술개발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자기도 참석해서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그 때, 옆에 있던 대통령 과학고문인 포남페루마(Cyril Ponnamperuma)박사(이 분은 미국에서 화학공부를 하고 매릴랜드대학 교수로 재직중 대통령 고문으로 발탁되었다고 합니다)가 최박사는 이미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개발전략에 관한 책을 세 권이나 출판했으며, 세 권 다 영문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책 한 권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기에 마침 과학고문에게 주려고 가지고 간 것이 한 권 있어 그것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80세 노인인데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이 없으니 괜히 책만 한 권 축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를 뜨기 전에 나보고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 것이냐고 물어서, 회의가 끝나는 것이 2일 후이니 모

레쯤 떠나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좀더 머물다가 갈 수 없느냐고 묻기에 무엇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되물었더니 그분은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약속이 있어서 오래는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다시 초청할 터이니 가까운 장래에 꼭 한번 더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85년 6월 23일에서 29일까지 재차 스리랑카를 방문하게 되었고, 콜롬보에 도착한 그 이튿날 대통령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80세 노인인 이 분이 제가 준 책을 읽고난 후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제게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더니 대단히 만족한 눈치였고, 이어 몇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면서 조리있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첫째, 이 책에는 한 나라 공업화를 위해선 기술개발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스리랑카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책을 말해 달라, 둘째는 뭐니뭐니해도 사람이 제대로 있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인력 양성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련해줄 수 없는지, 셋째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발도상국은 과학기술이 깊이있게 뿌리내리는 풍토가 되어 있지 않으니 풍토조성에 대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개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개발계획이나 교육방법이 아니고 한국에서처럼 과학원, 기능대학을 설립한 경위와 그에 필요한 특별조치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법, 즉 기본법이 필요한데 이를 초안해줄 수 있겠느냐 등이었습니다.

진지한 스리랑카대통령에 감명

정말 핵심을 찌르는 조치를 거의 전부 망라한 셈입니다. 그런데 기본법 초안만 해도 이것을 하루 이틀에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안이 되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광범위한 부탁이어서 약간 짐이 무겁다고는 생각했지만, 할 수 없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방에 한국에도 없는 최신식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를 준비해놓고 타이피스트도 대기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둘씩 답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쓰는 대로 그것이 즉각 타이핑이 되어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과학고문이 개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원 차관과 함께 저한테 들러 아침식사를 같이 하고 그날 그날 한 것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진흥법의 기초(起草)와 더불어 KIST와 같은 공업기술연구기관 설립, 인력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방안을 마련해 주고, 풍토조성에 대한 우리 시스템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도무지 소화가 안되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수년 걸려서도 될까 말까한 일을 며칠동안에 쉴 사이없이 만들어 주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스리랑카의 자야바르드느(J. R. Jayewardene)대통령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80 고령에도 불구하고 직접 책을 읽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저한테 질문도 제대로 하고 부탁도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대통령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스리랑카에서 과학기술분야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하고 실천방법도 제시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니, 대통령은 적극적인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내파와 국외파로 갈라져 대립하는 바람에 모처럼의 시도가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상부계층은 괜찮았는데 하부계층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대통령은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원수가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때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발전의 수레바퀴를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히라이와(平岩)위원장을 비롯한 닛케이(日經)아지아상 심사위원 여러분과 이에 관련된 신문사의 스기다(杉田)상무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ST